



COVID-19 대유행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불안감과 삶의 질에 대한 관계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Anxiety and Quality of Life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김영민, 박찬욱, 이유민, 이종민, 전휘현, 조현우

연구 배경 | BACKGROUND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은 타인과의 물리적 거리를 조성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개인의 일상생활을 고립된 형태로 변화시켜 우울, 외로움, 사람에 대한 그리움 등의 불안정한 감정을 촉발하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간호대학생은 대학 졸업 직후 대부분 간호사로 사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이 낮을 경우,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삶의 질과 불안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영경, 황선영(2017)의 연구에서 밝혀 진 바와 같이 불안과 삶의 질은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놓여 있으며, 불안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변인 중 하나이다. COVID-19라는 전염병 상황에서의 간호대학생의 불안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COVID-19로 인한 불안감과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며, 간호대학생의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연구 목적 | OBJECTIVES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상황에서의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의 불안감과 삶의 질에 대한 관계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필요한 교육 및 상담 자료 등을 마련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COVID-19 상황에서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감 정도를 조사한다.
3. 간호대학생의 COVID-19 상황에서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를 조사한다.
4. 간호대학생의 COVID-19 상황에서의 불안감과 삶의 질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 METHODOLOGY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B대학교의 간호학과 학생이다.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COVID-19 상황에서의 불안감과 삶의 질에 대 한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 도구

1) COVID-19 상황에서의 불안감 측정도구
등나(2020)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 주제에 맞도록 사용하였다.

2) 삶의 질 측정도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세계보건 기구 삶의 질 단축형 척도(WHOQOL-BREF)를 본 연구 주제에 맞도록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 기간은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11일 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네이버 폼)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량의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감과 삶의 질 만족도의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및 ANOVA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 RESULTS

일반적 특성

- 조사 인원 161명
- 조사항목 : 성별, 학년, 종교, 거주 형태, 연령, 직전학기 성적

성별	
남	28명 / 17.4%
여	133명 / 82.6%

학년	
1학년	36명 / 22.4%
2학년	45명 / 28.0%
3학년	31명 / 19.3%
4학년	46명 / 30.4%

종교	
기독교	59명 / 36.6%
천주교	6명 / 3.7%
불교	4명 / 2.5%
무교	91명 / 56.5%

직전학기 성적	
4.0 이상	47명 / 29.2%
3.5 이상	51명 / 31.7%
3.0 이상	22명 / 13.7%
3.0 미만	5명 / 3.1%
해당사항 없음 (1학년)	36명 / 22.4%

연령	
만 18-20세	65명 / 40.4%
만 21-23세	68명 / 42.2%
만 24-26세	12명 / 7.5%
만 27세 이상	16명 / 9.9%

거주 형태	
자택	116명 / 72.0%
기숙사	10명 / 6.2%
자취	34명 / 21.1%
하숙	1명 / 0.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감 차이

- ▷ **성별**에 따른 불안감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 28.89 ± 8.995 점 / 여자 : 28.76 ± 7.837 점 ($t=-.080$, $p=.937$)
- ▷ **학년**에 따른 불안감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28.50 ± 7.033 점 / 2학년: 29.27 ± 8.590 점 / 3학년: 30.42 ± 9.161 점 / 4학년: 27.51 ± 7.388 점 ($F=.909$, $p=.438$)
- ▷ **종교**에 따른 불안감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28.92 ± 8.813 점 / 천주교: 30.17 ± 6.585 점 / 불교: 26.75 ± 3.594 점 / 무교: 28.69 ± 7.817 점 ($F=.152$, $p=.928$)
- ▷ **거주 형태**에 따른 불안감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택: 28.28 ± 7.447 점 / 기숙사: 27.08 ± 6.684 점 / 자취: 30.29 ± 10.134 점 / 하숙: 26.00 점 ($F=.631$, $p=.596$)
- ▷ **연령**에 따른 불안감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18-20세: 29.00 ± 7.971 점 / 만21-23세: 28.99 ± 7.762 점 / 만24-26세: 27.08 ± 6.388 점 / 만27세 이상: 28.31 ± 10.632 점 ($F=.225$, $p=.879$)
- ▷ **직전학기 성적**에 따른 불안감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이상: 30.17 ± 10.439 점 / 3.5이상: 28.08 ± 4.799 점 / 3.0이상: 28.36 ± 10.312 점 / 3.0미만: 26.80 ± 2.280 점 / 해당사항 없음(1학년): 28.50 ± 7.033 점 ($F=.546$, $p=.70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 ▷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 85.93 ± 15.940 점 / 여자 : 83.16 ± 14.782 점 ($t=-.889$, $p=.375$)
- ▷ **학년**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85.58 ± 16.843 점 / 2학년: 82.42 ± 12.553 점 / 3학년: 80.81 ± 13.666 점 / 4학년: 85.12 ± 16.366 점 ($F=.829$, $p=.480$)
- ▷ **종교**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82.51 ± 14.754 점 / 천주교: 88.17 ± 17.904 점 / 불교: 80.25 ± 7.365 점 / 무교: 83.92 ± 15.089 점 ($F=.368$, $p=.776$)
- ▷ **거주 형태**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택: 83.37 ± 14.793 점 / 기숙사: 87.30 ± 15.217 점 / 자취: 84.06 ± 15.665 점 / 하숙: 64 점 ($F=.791$, $p=.501$)
- ▷ **연령**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18-20세: 84.26 ± 14.784 점 / 만21-23세: 81.90 ± 14.843 점 / 만24-26세: 85.50 ± 20.809 점 / 만27세 이상: 87.13 ± 11.260 점 ($F=.691$, $p=.559$)
- ▷ **직전학기 성적**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이상: 86.49 ± 15.226 점 / 3.5이상: 83.00 ± 12.553 점 / 3.0이상: 77.64 ± 14.251 점 / 3.0미만: 75.80 ± 4.919 점 / 해당사항 없음(1학년): 85.58 ± 16.843 점 ($F=1.866$, $p=.119$)

COVID-19 상황에서의 불안감과 삶의 질 관계

	불안감 합산	삶의 질 합산
불안감	1	.222
삶의 질		1
p > 0.05		

불안감과 삶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이 불안감과 삶의 질은 $p=.222$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CONCLUSIONS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불안감과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대한 관계 알아보며, 간호대학생의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실시되었다.

COVID-19 대유행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불안감 수준 및 삶의 질 수준을 일반적 특성으로 비교해본 결과 성별, 학년, 종교, 거주 형태, 연령, 직전학기 성적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OVID-19 상황에서의 간호대학생에 있어 불안감 과 삶의 질은 일반적 특성과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삶의 질에 있어 불안감 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천안 소재의 B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의 수가 적어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 일반적 특성 비율이 균등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었으며, COVID-19 상황에서의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은 높여줄 수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COVID-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와, 삶의 질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